

대학 교수자의 강의촬영 분석을 통한 좋은 수업 요인 탐색

조용개¹⁾, 김은주²⁾

Exploring Good Teaching factors through Lecture Videotaping Analysis of University Instructors

Yong-Gae Cho¹⁾, Eun-Ju Kim²⁾

요약

본 연구는 대학 교수자의 수업분석을 통하여 좋은 수업을 결정하는 수업요인을 밝혀, 대학교육 현장에서 수업의 질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대학 교수자 80명을 대상으로 수업촬영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수업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교차분석,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 Spearman의 등위상관분석, 독립표본 t검정,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좋은 수업 인식여부와 수업요인 간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특히, 좋은 수업 인식여부는 강의방법과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둘째, 좋은 수업 인식여부에 따라 수업요인 하위영역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교수자 자신의 수업을 좋은 수업이라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셋째, 교수자의 좋은 수업을 결정하는 수업요인 중 강의구성은 '강의 마무리 단계가 있는가?', '학생들의 주의집중을 시키는가?', '강의 도입단계가 있는가?' 로 나타났으며, 강의진행은 '강의에 대한 열의', '적절한 시간활용'으로 나타났고, 강의방법은 '호기심 유발', '다양한 교수매체 활용'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업요인 중 언어표현은 '목소리 변화', 몸동작은 '모든 학생에 대한 관심', 상호작용은 '칭찬과 격려'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가 대학의 교수자들이 좋은 수업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업요인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을 수업에 적용함으로써 수업의 질적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핵심어 : 대학 교수자, 강의촬영 분석, 좋은 수업, 수업인식, 좋은 수업 요인

Abstract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basic data necessary to improve the quality of teaching in college education field by identifying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good teaching through analysis of the teaching of the university instructors. For this purpose, 80 university instructors were analyzed using classroom filming analysis tool. For the analysis methods, crossover analysis, independent sample t test and one-way ANOVA, Spearman's rank correlation analysis, independent sample t 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recognition of good teaching and the teaching factors. Especially, recognition of good teaching showed the highest correlation with lecture method. Second, depending on the availability of the recognition of good teaching,

Received(June 20, 2018), Review Result(June 29, 2018), Accepted(July 13, 2018), Published(September 30, 2018)

¹⁾(Professor) 31460 Institute of Liberal Arts, SunMoon Univ., Sunmoon-ro 221-70, Asan-si, Korea
email: ygcho@sunmoon.ac.kr

²⁾(Professor, Corresponding Author) 13135 Faculty of Liberal Arts, Eulji Univ. Sanseongdae-ro 553, Seongnam-si, Korea email: kej70@eulji.ac.kr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ll of sub-domains. In other words, the group that the instructor recognized his own lesson positively as the good teaching showed higher score than the group that did not. Third, among the teaching elements that determine the good teaching of instructor, the lecture composition turned out to be 'Is there a step to finish the lecture?', 'Does the instructor make the student pay attention?', and 'Is there a step to introduce lectures?', and the lecture progress turned out to be 'enthusiasm for lecture' and 'appropriate use of time', while the lecture method turned out to be 'curiosity stimulation' and 'use of diverse teaching media'. In addition, the linguistic expression among the teaching elements turned out to be 'voice change', and the gesture turned out to be 'attention for all students', while the interaction turned out to be 'praise and encouragement'.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to be helpful to the college instructors in taking what teaching elements into consideration to provide good instruction to students, and in improving the quality of teaching by applying those factors.

Keywords : University Instructor, Lecture Videotaping Analysis, Good Teaching, Recognition of Teaching, Good Teaching Factors.

1. 서론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충족되어야 하겠지만 그 중에서 '가르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교수자의 교육역량'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교수자의 교육역량을 높이는 한 방안으로서의 수업분석은 교수자를 대상으로 수업활동(수업장면)을 촬영하여 자신의 수업을 학습자 입장에서 모니터링 해 보거나 수업분석 혹은 컨설팅을 통하여 수업의 실체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수업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1].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대학을 비롯하여 초·중·고에서도 수업을 촬영·분석함으로써 수업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고 있으며, 교원임용시험에서도 마이크로티칭을 활용한 수업시연을 포함시키고 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경우에는 1년에 약 200여명의 교수자들이 자신의 수업을 촬영하여 분석해 봄으로써 수업의 개선점을 발견하고 효과적인 교수방법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수업분석은 수업에서 일어나는 사실과 현상을 일정한 수업분석 기준이나 도구를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법으로 수업을 상세하게 관찰·기록하고, 그 의미를 밝힘으로써 수업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3]. 교수자가 수업 중에 하는 행동은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학습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교수자가 자신의 수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학생들의 교육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4],[5],[6]. 뿐만 아니라 교수자는 수업분석을 통하여 수업에서 발생하는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의사결정 상황을 집중 관찰함으로써 바람직하지 않는 장면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뿐만 아니라 수업 시 발생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과 교수방법에 대한 대안을 찾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교수자는 수업관찰을 통하여 자신의 수업촬영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자신의 수업에 대한 문제해결의 단서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교수자 스스로 수업촬영 장면을 분석하여 수업개선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수업을 분석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면 수업분석을 통해 보다 객관적인 수업분석과 이에 따른 처방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수업을 질적으로 향상, 개선하기 위해서는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미비한 것은 교수자의 변화에 대한 의지가 약한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수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관찰과 분석 방법이 선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7].

그간 수업분석과 관련하여 좋은 수업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는데, 이들 연구들은 대부분 수업분석의 기초자료를 활용되는 좋은 수업의 특성에 관한 연구들로, 수업분석을 통해 좋은 수업의 요인들을 밝혀 수업의 질적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특히, 좋은 수업의 조건에 대해 연구한 박성익(2000)[8]은 여러 조건 중 좋은 수업의 조건으로 교사특성 중 교수자가 인식하는 성취감은 중요한 좋은 수업의 조건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교수자가 좋은 수업이라고 인식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결정하는 좋은 수업의 요인을 탐색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수자 스스로 자신의 교육관을 정립하고, 교육의 의미와 가치를 인식하고, 학습자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가지고 있으며, 학생들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과 보람을 통해 자신의 수업에 성취감을 갖고 자신의 수업을 좋은 수업이라고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교수가 자신의 수업을 어떻게 인식하는 가는 교수-학습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9],[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업촬영분석을 통하여 교수가 자신의 수업을 좋은 수업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수업요인을 추출하여 해당 요인에 대한 교수(teaching)의 질적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학 교수자들의 수업촬영 내용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좋은 수업을 결정하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업의 질적 분석과 분석 결과의 양적 접근 방법을 통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수업의 요인을 추출하여 대학교육 현장에서 교수의 질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의 좋은 수업 인식 여부와 수업요인 수준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교수의 좋은 수업 인식 여부에 따른 수업요인 수준의 차이는 어떠한가?

셋째, 좋은 수업여부를 구분하는 수업요인은 무엇인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학 교수자들의 좋은 수업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2014부터 2016까지 약 3년간 전문대와 4년제 대학 교수 80명을 대상으로 수업촬영분석과 함께 좋은 수업 인지여부를 조사하였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교수자들의 수업을 분석하기 위해 Teaching style과 Presentation style 분류를 기

반으로 여러 대학에서 강의 촬영 분석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조 벽(2012)[11]의 수업분석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종속변인으로 자신의 수업이 좋은 수업인지의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자신의 수업이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를 '그렇지 않다', '그렇다' 이분법으로 측정할 문항을 사용하였다. 수업분석의 하위요인은 총 6개의 영역(강의구성, 강의진행, 강의방법, 언어적 표현, 몸동작, 상호작용)으로 되어 있으며, 각 영역별로 5개의 세부 항목, 총 3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내용의 변수 값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전체 신뢰도 계수는 .753이며, 하위요인별 Cronbach' α 값은 .603~.861의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

2.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18.0을 통해 연구문제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석되었다. 첫째, 수업요인 분석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 α 값을 확인하였다. 둘째, 교수들의 좋은 수업 인식 여부에 대한 배경변인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교수자의 좋은 수업인식 여부와 수업요인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Spearman의 등위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교수자의 좋은 수업 인식 여부에 따른 수업요인의 수준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교수자들의 좋은 수업 인식 여부를 구분하는 수업요인이 무엇인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수업요인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과 집단 분류의 정확도를 알아보았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본 연구의 설문지처럼 종속변수가 '아니다'와 '그렇다' 같은 이분형 변수인 경우가 적합하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판별분석과 달리 종속변수에 의해 범주화된 집단들의 분산-공분산 행렬이 동일해야 하며, 독립변수들은 범주형과 연속형 변수 모두 가능하며, 다변량 정규분포를 이루어야 한다는 가정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12]. 구체적으로 두 개 이상의 예측변인들을 동시에 투입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교수자의 배경변인별 좋은 수업 인식 여부

교수자의 배경변인별 좋은 수업 인식 여부 분포를 조사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성별, 내외국인, 대학유형, 계열, 대학구분별로 좋은 수업 인식 여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성별, 대학유형, 계열에 따라 좋은 수업 인식 여부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내외국인과 대학구분에 있어 각각 유의수준 .05와 .01에서 좋은 수업 인식 여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배경변인별 좋은 수업 인식 여부에 대한 인식 분포(N=80)

[Table 1] Awareness distribution on recognition of good teaching per background variable

구 분		아니다(n=34)	그렇다(n=46)	전체(n=80)	χ^2	df	p
성별	남자	26(47.3)	29(52.7)	55(100.0)	1.64	1	.230
	여자	8(32.0)	17(68.0)	25(100.0)			
내외국인	내국인	34(46.6)	39(53.4)	73(100.0)	5.67*	1	.019
	외국인	0(0)	7(100.0)	7(100.0)			
대학유형	4년제대	12(34.3)	23(65.7)	35(100.0)	1.71	1	.255
	전문대	22(48.9)	23(51.1)	55(100.0)			
계열	문과계	19(34.5)	36(65.5)	55(100.0)	4.55	1	.050
	이과계	15(60.0)	10(40.0)	25(100.0)			
대학구분	4년제대K	13(27.7)	34(72.3)	47(100.0)	11.91**	3	.008
	4년제대S	6(75.0)	2(25.0)	8(100.0)			
	전문대K	6(75.5)	2(25.0)	8(100.0)			
	전문대S	9(52.9)	8(47.1)	17(100.0)			

* $p < .05$, ** $p < .01$

3.2 교수자의 좋은 수업 인식 여부와 수업요인 간의 상관관계

[표 2] 좋은 수업 인식 여부와 수업요인 간 상관관계

[Table 2] Correlation between recognition of good teaching and teaching factors

구 분	좋은 수업 인식 여부	강의 구성	강의 진행	강의 방법	언어 표현	몸동작	상호 작용	수업 요인 전체
좋은 수업 인식 여부	1							
강의구성	.579***	1						
강의진행	.655***	.628***	1					
강의방법	.674***	.524***	.652***	1				
언어표현	.478***	.351***	.470***	.522***	1			
몸동작	.501***	.423***	.459***	.528***	.589***	1		
상호작용	.627***	.443***	.629***	.833***	.558***	.476***	1	
수업요인 전체	.744***	.695***	.790***	.886***	.727***	.740***	.861***	1

*** $p < .001$

좋은 수업 인식 여부와 수업요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2]와 같이 상관계수의 범위는

.351~.886으로 수업요인 하위요인 전체와 좋은 수업 인식 여부 간에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3.3 수업요인별 교수자의 좋은 수업 인식 여부의 차이

[표 3]와 같이 조사된 결과, 교수자의 좋은 수업 인식 여부에 따라 수업요인별 점수를 분석한 결과, 좋은 수업이 아니라고 응답한 경우 수업요인 평균(표준편차)이 3.39(.328)로 좋은 수업이라고 응답한 평균(표준편차) 3.97(.197)보다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교수자가 좋은 수업이라고 인식한 경우 수업요인 점수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두 집단 간 점수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t통계값이 -9.83, 유의확률 .000으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업요인 하위요인 모두 좋은 수업이 아니라고 응답한 집단에 비해 좋은 수업이라고 응답한 집단의 수업요인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수업요인별 좋은 수업 인식 여부 차이

[Table 3] Difference in recognition of good teaching by teaching factors

구분	좋은 수업 인식 여부	N	평균	표준편차	t	p
강의구성	아니다	34	3.3471	.42728	-6.26***	.000
	그렇다	46	3.8696	.31894		
강의진행	아니다	34	3.4941	.26622	-7.64***	.000
	그렇다	46	3.9522	.26394		
강의방법	아니다	34	3.2353	.53365	-8.05***	.000
	그렇다	46	4.0609	.38383		
언어표현	아니다	34	3.6059	.40147	-4.80***	.000
	그렇다	46	4.0000	.33200		
몸동작	아니다	34	3.4353	.54265	-5.11***	.000
	그렇다	46	3.9609	.37623		
상호작용	아니다	34	3.2588	.58368	-7.10***	.000
	그렇다	46	4.0130	.36369		
수업요인 전체	아니다	34	3.3961	.32812	-9.83***	.000
	그렇다	46	3.9761	.19710		

*** $p < .001$

3.4 수업요인별 교수자의 좋은 수업 인식 여부 결정요인

[표 4]과 같이 교수자의 좋은 수업 인식 여부를 예측하는 강의구성, 강의진행, 강의방법, 언어표현, 몸동작, 상호작용을 독립변수로 모형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및 집단 분류의 정확도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첫째, 강의구성의 하위요인 중 적절한 강의목표, 중요내용 부각을 제외하고 강의도입단계가 있는가(Wald=6.43, $p=.011$), 학생들의 주의집중을 시키는가(Wald=8.90,

p=.003), 강의 마무리 단계가 있는가(Wald=11.09, p=.001)로 유의수준 .05, .01에서 교수의 좋은 수업 인식 여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강의진행의 하위요인 중 적절한 강의속도, 계획대로 진행된 강의를 제외하고 적절한 시간활용(Wald=6.67, p=.010), 강의에 대한 열의(Wald=14.04, p=.000)으로 유의수준 .05, .001에서 교수의 좋은 수업 인식 여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강의방법의 하위요인 중 다양한 교수방법 적용, 학생참여 유도, 즉각적 피드백 제공을 제외하고 다양한 교수매체 활용(Wald=5.05 p=.025), 호기심 유발(Wald=5.78, p=.016)로 유의수준 .05에서 교수자의 좋은 수업 인식 여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언어표현의 하위요인 중 목소리 변화를 제외하고 좋은 수업 인식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 수업 인식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목소리 변화는 (Wald=5.00 p=.025) 유의수준 .05에서 교수의 좋은 수업 인식 여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몸동작의 하위요인 중 모든 학생에 대한 관심을 제외하고 좋은 수업 인식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 수업 인식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든 학생에 대한 관심은 (Wald=6.30 p=.012) 유의수준 .05에서 교수의 좋은 수업 인식 여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섯째, 학생과의 상호작용 하위요인 중 칭찬과 격려를 제외하고 좋은 수업 인식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 수업 인식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칭찬과 격려는 (Wald=7.57 p=.006) 유의수준 .01에서 교수자의 좋은 수업 인식 여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면, 교수자의 좋은 수업 인식 여부를 예측하는 수업요인 중에서 좋은 수업을 결정하는 수업요인으로 강의도입단계, 주의집중, 강의마무리, 강의에 대한 열의, 적절한 시간활용, 호기심 유발, 다양한 교수매체 활용, 목소리 변화, 모든 학생에 대한 관심, 칭찬과 격려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수업요인별 교수자의 좋은 수업 인식 여부 결정요인

[Table 4] Determinants of teachers' perception of good teaching by teaching factors

수업요인		B	S.E.	Wald	자유도	유의확률	Exp(B)
강의구성	강의도입 단계	1.492	.588	6.436	1	.011	4.448
	주의집중	2.394	.802	8.902	1	.003	10.959
	강의 마무리	1.428	.429	11.091	1	.001	4.172
강의진행	적절한 시간활용	2.031	.786	6.673	1	.010	7.622
	강의에 대한 열의	2.908	.776	14.045	1	.000	18.325
강의방법	다양한 교수매체 활용	1.780	.791	5.057	1	.025	5.928
	호기심 유발	3.615	1.503	5.788	1	.016	37.151
언어표현	목소리 변화	1.277	.571	5.001	1	.025	3.585
몸동작	모든 학생 관심	1.708	.680	6.303	1	.012	5.520
학생과의 상호작용	칭찬과 격려	2.358	.857	7.576	1	.006	10.570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 교수자의 수업분석을 통하여 좋은 수업을 결정하는 수업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80명의 대학 교수자들의 수업촬영 내용을 토대로 Teaching style과 Presentation style로 구분하여 총 6개의 하위영역별로 나누어 각 영역별 5개 세부항목, 총 30개 문항으로 수업 분석을 하였다. 이를 위해 수업요인 분석도구의 신뢰도 확인과 자료의 처리를 위하여 교차분석, Spearman의 등위상관분석, 독립표본 t검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자의 배경변인별 좋은 수업 인식 여부의 차이는 성별, 대학유형, 계열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내외국인, 대학구분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즉 내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은 모두 자신의 수업이 좋은 수업이라고 응답한 반면에 내국인은 자신의 수업이 좋은 수업이라고 응답한 수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수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대학구분의 경우에는 4년제 K대학 교수자들이 자신의 수업이 좋은 수업이라고 응답한 분포가 많은데 비해 전문대K 교수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분포가 많았다. 이는 외국인 교수자들에 비해 내국인 대학의 교수자들이 좋은 수업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을 보여주며, 4년제 교수자들에 비해 전문대 교수자들이 상대적으로 자신의 수업이 좋은 수업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은 전문대의 특성상 실습 중심의 수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둘째, 교수자의 좋은 수업에 대한 인식여부와 수업요인들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즉 자신의 수업이 좋은 수업이라고 인식하는 교수자들이 모든 수업요인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좋은 수업의 인식여부는 강의방법에서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셋째, 교수자의 좋은 수업에 대한 인식여부에 따른 수업요인별 수준 간의 차이에 있어서는 자신의 수업이 좋은 수업이라고 인식하는 교수자들이 수업요인 하위영역 모두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즉, 교수자 자신의 수업을 좋은 수업이라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강의구성, 강의진행, 강의방법, 언어표현, 몸동작, 상호작용 등 모든 수업요인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좋은 수업에 대한 인식여부와 수업요인들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교수자의 좋은 수업을 결정하는 수업요인 중 강의구성의 경우, '강의도입단계', '주의집중', '강의마무리'가 좋은 수업의 요인으로, 강의진행의 경우, '강의에 대한 열의', '적절한 시간활용'이 좋은 수업의 요인으로, 강의방법의 경우, '호기심 유발', '다양한 교수매체 활용'이 좋은 수업의 요인으로, 언어표현의 경우에는 '목소리 변화'가 좋은 수업의 요인으로, 몸동작의 경우, '모든 학생에 대한 관심'이 좋은 수업의 요인으로, 상호작용의 경우, '칭찬과 격려'가 좋은 수업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탐색된 좋은 수업을 결정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teaching style 측면에서 강의구성에서는 강의도입단계, 주의집중, 강의마무리 요인, 강의진행에서는 강의에 대한 열의, 적절한 시간활용, 강의방법에서는 호기심 유발, 다양한 교수매체 활용, 상호작용에서는 칭찬과 격려, 그리고 presentation style 측면에서는 언어표현에서 목소리 변화, 몸동작에서 모든 학생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대부분의 좋은 수업에 관한 연구는 주로 강의구성, 강의진행, 강의방법, 상호작용 등 teaching style 측면에서 이루어졌지만 본 연구에서는 교수자들이 강의촬영한 내용을 teaching style 외에도 presentation style(언어표현, 몸동작)을 함께 분석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실제 강의촬영내용을 질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양적 분석 접근 방법을 통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수업의 요인을 추출하여 대학교육 현장에서 수업의 질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를 두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의 교수자들이 교수-학습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좋은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 어떠한 수업요인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요인들을 수업에 적용해야 하는지를 안내함으로써 수업의 질적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나타난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추후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좋은 수업을 구성하는 요인들을 예측변수로 하는 교수자 자신의 수업에 대한 긍정 또는 부정을 결정하는 하는 연구이다. 그러나 자신의 수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예측변수로 수업장면에 국한되어 살펴본 점을 제한점으로 들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수업장면 외에 학생특성,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환경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예측변수로 하는 모형을 통해 수업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수자가 인식하는 수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의 예측요인 도출을 통해 추후 연구에서는 교수자들의 좋은 수업을 이끌어내고 나아가 긍정적인 교육관을 형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특정 대학의 일부 교수자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그 결과를 전체 교수들에게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좋은 수업을 만들어 내기 위한 다양한 조건들 중에 교수자 자신의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수업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앞으로 다양한 시각에서 좋은 수업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References

- [1] Y. G. Cho and E. J. Kim, Exploring instruction elements that determine good teaching through instruction analysis - Focused on the analysis of lecture videotaping of university instructors, *Convergence Research Letters*. (2017), Vol.3, No.3, pp.209-214.

- [2] SNU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Teaching Guide. (2005),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 [3] N. H. Kim, Development of an analysis instrument for good instruction. Doctoral thesis. (2012), Andong National University.
- [4] J. Y. Kim, Different perceptions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nglish teachers on good classes, Primary English Education. (2014), Vol.20, No.1, pp.85-111.
- [5] S. J. Lim, An exploratory study on pre-service teachers' subjective recognition on good teaching,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4), Vol.14, No.8, pp.25-44.
- [6] Y. M. Jeon, A study on professors' perceptions of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good teaching in the S university in the capital region,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2014), Vol.22, No.1, pp.25-51.
- [7] H. R. Min, M. J. Sim and H. J. Yun, Korean type teaching consulting. (2012), Seoul; Hakesisup.
- [8] S. I. Park, Theory and practice of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2000), Seoul; Kyoyookbook.
- [9] NCATE, *Program standards for elementary teacher preparation*. (1998), .NCATE.
- [10] NCTM, *Professional standards for teaching mathematics*. (1991), Reston. VA: Author.
- [11] B. Cho, Cho Beck professor's teaching consulting. (2012), Seoul; Haenem.
- [12] S. G. Kim, D. B. Jung and Y. S. Park,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logistic regression model using SPSS. (2004), Seoul; SPSS Academy.